김영랑의 시문학 공간 연구

김 선 기*

〈차 례〉

Ⅰ. 머리말
Ⅱ. 김영랑의 시문학 공간의 특수성
1. 인문 지리적 공간의 특성
2. 『시문학』지와의 관계성
Ⅲ. 김영랑의 시문학 공간의 형상성
Ⅳ. 영랑 시 공간의 문학사적 의의
Ⅴ. 맺음말

Ⅰ. 머리말

‘공간에 대한 논의가 처음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1890대 초 건축 분야에서다. 이 시점은 전 유럽적인 양상이었던 아르누보 운동의 시작 시기와 일치한다.[1] 이후 20세기 초 예술의 전반적인 분야에서 공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다. 하이데거(Heidegger)는 ‘장소(공간)’는 인간의 실존이 외부와 맺는 유대를 드러내는 것이다.[2]고 주장했다. 우리가 일하고, 생활하는 모든 활동은 장소를 통해 가능해진다. 즉 장소는 인간

* 전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수료, 영랑문학관 학예연구사

1) 박형진, 「슐츠의 실존적 공간론을 기반으로 한 현대건축 실내공간의 장소성에 관한 연구」, 건국대 건축전문대학원 박사논문, 2008.

2) 에드워드 랠프, 『장소와 장소상실』, 논형, 2005, 25쪽.

의 모든 활동과 삶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다. 이는 문학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이를 역으로 생각해보면 인간의 삶의 조건을 형성시키는 요소로서 장소나 공간을 연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말해주는 하나의 근거가 될 수 있다.

독일의 비평가 레싱(G.E. Lessing)은 그의 저서 『라오콘(Laokoon)』에서 시는 시간의 지배를 받는 예술이라고 분류했다. 즉 공간적이고 동시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는 조형예술에 비해서, 문학은 시간적이고 연속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학이 인간의 삶을 대상으로 한다는 사실이 변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분류는 극단적인 이분법에 지나지 않는다. 시간과 공간은 모두 인간의 삶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들이기 때문에 두 가지 중에서 어느 한쪽만이 강조될 수는 없는 일이다.

현대 예술비평은 레싱 이후의 전통적 논리와는 다른 방향에서 예술작품의 시간과 공간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 즉 공간예술인 회화에서 공간적 매체에 내재한 한계들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시간성의 개념이 활발하게 도입되고 있는 것을 예로 들면서, 여타 분야에서도 시간과 공간이 역사적으로나 절대적으로 구분되지 않고 함께 공존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우리 문학사에서 공간에 대한 논의는 그리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다. 설사 그 동안의 논의가 있다손 치더라도 작품에 내포된 역사인식과 현실비판인식을 지나치게 강조해 왔을 뿐이다. 이는 우리 현대사의 특수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일본 강점기와 분단현실, 그리고 권력집단에 의해 강압적으로 진행된 산업화에 대한 대응수단으로 문학이 인식되어 온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인식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역사인식과 현실비판의식이 강조되다 보니, 작품이 형식이나 구조에 대한 접근보다는 내용적인 측면이 부가될 수밖에 없

었고, 이에 따라 역사의 시간적 속성만이 집중적으로 부각되었다는 사실이 문제다.

'공간'을 바꾸어 표현하면'지형'으로 명기할 수 있다. 본래 '지형'이라는 개념은 지리학과 지구과학 분야에서 제시된 것이다. 지구과학에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의 표면 형태를 조사하고 그 형성과정과 지역적 분포를 정리하여 지형을 통계적이며 체계적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연구를 '지형학(Geomorphology)'이라고 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지도 위에 도식화한 것이 지리학에서 사용하고 있는 '지형(topographic map)'이다.

문학에 있어서 이런 개념이 적용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1945년 조셉 프랑크(Joseph Frank)가 근대문학의 주요한 패러다임으로 '공간형식(Spatial Form)'이라는 개념을 제기한 이후, 다양한 관점에서 문학의 공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미첼(W.J.T Mitchell)의 논의가 주목된다. 그는 텍스트의 공간형식을 인쇄 공간, 텍스트 안에 재현·모방된 의미 공간, 구조 공간, 주제 공간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중에서 문학지형학에서 주목하는 것은 의미 공간, 즉 작가가 체험한 실제 공간을 작품 속에 어떤 형식으로 재현했는가 하는 점이다.[3]

오랫동안 문학은 독서 행위를 통해서만 향유할 수 있는 것으로 인식되어왔다. 그러나 최근 정보기술(IT : information technology)과 문화기술(CT : culture technology) 관련 산업이 발달함에 따라서 다양한 측면에서 문학의 새로운 향유방법을 찾으려는 노력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문학작품의 '공간'에 대한 문제가 주목받고 있다. 문학작품은 시간과 함께 공간을 기본적인 요소로 해서 창작되는데, 이것

3) 김수복, 「현대시와 지형학적 상상력」, 『한국문학공간과 문화콘텐츠』, 청동거울, 2005, 132~133쪽.

들은 우리의 삶을 구성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그 중에서도 특히 문학공간을 통해서 문학작품의 구체성이 확보되며, 이 과정에서 작가의 창조적인 역량이 발휘된다. 즉, 동일한 공간을 대상으로 한 작품일지라도 작가의 개인적인 체험이나 관심, 그리고 역사인식에 따라 사뭇 다른 양상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이다. 가령, 이광수의 '대동강'과 김동인의 '대동강'이 같을 수 없고, 임화의 '종로'와 이상의 '종로'가 동일할 수 없으며, 신동엽의 '금강'과 박용래의 '금강'이 같을 수 없다.

그러므로 작품의 배경 공간을 찾아 돌아보는 활동은 작가의 창작적 원천을 탐색하는 작업이 된다. 문학 기행이 전통적인 창작 교육방법으로 활용되었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 같은 측면에서 볼 때 문학공간은 이런 활동의 거점이 되는 공간임에 틀림이 없다. 특히 1988년 지방자치법이 제정된 이후부터 문예교실을 운영하고 문학 관련 행사를 개최하는 등 문화 복지 기능을 담당하는 문학공간이 속속 건립되기 시작했다. 최근에는 기존의 시설물 개념을 탈피하여 문학촌·문학테마파크·문학테마타운 등의 복합문화공간적인 특성을 가진 문학공간의 건립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따라서 그동안 문학공간은 양적으로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루었다.

본 연구는 노버그 슐츠(C.Noberg Schultz)의 '실존적 공간이론'을 수용하여 김영랑 시의 문학공간을 문학사적 관점에서 고찰하고자 한다. 제Ⅱ장에서는 영랑 시의 원천이 된 그의 고향 강진의 인문 지리적 특성과 함께 1930년대 한국 현대시의 분수령을 이룬 시문학파와의 연관성을 살필 것이다. 또 Ⅲ장에서는 영랑의 시가 강진이라는 공간에 어떻게 형상화 되었는지를, 제Ⅳ장은 Ⅲ장에서 살핀 영랑 시의 문학공간에 대한 의미를 고찰할 것이다.

Ⅱ. 김영랑의 시문학 공간의 특수성

1. 인문 지리적 공간의 특성

영랑 김윤식의 태생지 강진은 전형적인 남도의 시골이다. 주지하다시피 강진은 유홍준의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창작과비평사, 2011)에 힘입어 '남도답사 1번지'로 부상하였다. 유홍준의 말[4]처럼 강진은 크기(면적)에 비해 유독 문화유산이 많은 지역이다. 그것도 남도를 넘어 우리나라를 대표할 만한 문화유산이 수다하다.

> 해남·강진은 남 해변, 우리나라 토양이 예부터 생산해 온 꽃에서는 가장 기름기 많고 풍요한 꽃이 우리 국토 중에서는 제일 많이 피는 곳이고 그 기름덩어리의 알맹이 과실 胡桃나무도 자라는 곳이고, 또 해안에 자라는 나무 넌출들도 이는 바람에 충분히 사람의 神바람을 일으킬 정도로 길게 너울거려 춤을 추고 있는 것들이 보이는 데고, 이 새 울음도 기름기가 번지르르한 데고, 날아다니는 풍뎅이 같은 것도 새파랗게 반 뼘씩은 되는 게 많이 사는 데고, 그렇게 모든 것이 伸展해 살 만큼 따뜻하고, 비옥하고, 物豐한 데다.[5]

멀리 서북쪽으로 月出山이 바라다 보이는 多島海를 끼고 康津灣을 거슬러 올라가면 기름진 평야가 도도히 흐르는 탐진강 줄기와 더불어

4) 거기에는 뜻있게 살다간 사람들의 살을 베어내는 아픔과 그 아픔 속에서 키워낸 진주 같은 유형의 문화유산이 있고, 저항과 항쟁과 유배의 땅에 서려 있는 역사의 체취가 살아 있으며, 이름 없는 도공 이름 없는 농투성이들이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는 꿋꿋함과 애잔함이 동시에 느껴지는 향토의 흙내음이 있으며 무엇보다도 조국강산의 아름다움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산과 바다와 들판이 있기에 나는 주저 없이 '일 번지'라는 제목을 내걸고 있는 것이다.

5) 김용성, 『모란이 피기까지는』의 작가 해설, 삼중당, 1975, 120쪽.

펼쳐진다. 어느 詩人이 하도 많은 多島海 섬이어서 도둑맞을까 걱정한 康津灣 앞 바다의 크고 작은 섬들이 봄날에는 마치 물오리 떼처럼 은빛으로 남실거리는 아지랑이 위에 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海洋性 氣候라서 사철 溫暖하고 비가 유달리 많은 것이 이 고장 康津의 특징이다. 연평균 13.5도라니 기온은 좀체 영하로 내려가는 일이 없다고 한다. 그러기에 난대식물들이 무성히 자라고, 대숲 또한 이 고장의 색다른 풍정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어디를 가나 동백나무가 눈에 띄고 어떤 마을에는 거의 울타리 삼아 동백나무로 두루 가리고 있으니, 한 겨울 눈발이 선뜻 지내다가 마지못해 더러 흩뿌리는 속에 빨간 동백꽃이 검푸른 잎 사이에서 겨우내 피는 동안 시나브로 봄은 오는 것이다.[6]

> 강진만이 바다는 따스한 요니(女陰)처럼 육지를 파고들어 조붓하고 아늑하였다. 등 푸른 여름 산맥들이 그 요니의 바다를 따라서 만의 하구로 치닫고 있었다. 공룡의 앞발을 치켜 올린 듯이 가파르고 사나운 봉우리들은 멀어서 아득하였고, 유순하고 올망졸망한 봉우리들과 헐거운 산허리들은 인간 쪽으로 다가왔다.[7]

위의 인용문들은 영랑의 시적 소재로 등장하고 있는 강진의 아름다운 자연과 그곳의 남국적 이미지를 서술한 것들이다. 강진지역을 빙 둘러보면 대구면 도요지는 한국 예술의 최대 걸작품으로 손꼽히는 고려청자의 성지요, 병영면의 전라병영성은 조선조 500여 년간 전라도 육군의 총 지휘부이자 우리나라를 서양에 최초로 소개한 핸드릭 하멜(Hendrik Hamel, ?～1692)[8] 일행이 약 8년 동안 억류생활을 했던 곳이

6) 신석정, 『현구시집』 서문, 문예출판사, 1970, 12쪽.
7) 김 훈, 「도망칠 수 없는 여름」, 『풍경과 상처』, 문학동네, 1994, 62쪽.
8) 네덜란드의 선원(?～1692). 동인도 회사 소속 상선을 타고 일본 나가사키로

다. 또한 도암면의 다산초당은 이 땅에서 가장 추앙받는 학자요 사상가인 다산 정약용이 600여 권의 명저를 남김으로써 유배문화를 꽃피웠던 곳이며, 강진읍 영랑 생가는 남도의 소월로 불리는 영랑 김윤식이 빼어난 서정시를 낳은 문학의 공간이다. 그리고 성전면의 무위사는 '수월관음도' 등 불교 벽화의 보고요, 특히 백련사는 그 유명한 백련결사운동[9]의 본거지이다.

본래 강진(康津)이란 지명은 도강(道康)과 탐진(耽津)이라는 두 고을이 하나로 합해진 데에서 유래한다. 먼저 도강은 지금의 병영·작천·성전·옴천면 일대로서 백제시대에는 도무군, 통일신라에는 양무군, 고려시대에는 도강현으로 고쳐 부르다가 조선시대 태종 17년(1417) 광산현(현 광주시 광산구 영동리)에 있던 병마도절제사영을 도강현(현 강진군 병영면 성동리)으로 옮긴 후 탐진현과 합하여 강진현이 되었다. 그리고 탐진은 지금의 강진읍을 비롯한 군동·도암·신전·칠량·대구·마량면 일대로서 백제시대에는 동음현이었는데, 통일신라시대부터 탐진현으로 고친 뒤 계속 같은 이름으로 부르다가 조선시대 태종 17년

가다가 폭풍으로 파선하여 조선 효종 4년(1653)에 일행과 함께 우리나라에 들어와 14년 동안 억류 생활을 하고 귀국하였다. 자신의 경험을 담은 『하멜표류기』를 저술하여 조선의 지리, 풍속, 정치 따위를 유럽에 처음으로 소개하였다.

9) 13세기 초 무신혁명에 의해 정권을 장악한 최씨의 무신정권은 그들의 지배이념을 뒷받침할 사상의 강화 내지는 재정비 작업에 착수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불교계의 반발 움직임이 이른바 결사운동(結社運動)이다. 고려 후기 불교결사운동을 대표하는 백련사는 수선결사와는 달리 참회와 정토를 강조하면서 일반 민중을 구제 대상으로 하고 있었다. 즉 백련결사운동은 수선결사운동이 무신정권과 결탁하여 정치 세력화한 것에 대해 반발한 순수불교운동이었고, 당시의 정치·사회적인 혼란의 와중에서 민중을 구도하기 위한 민중불교 운동이었다. 따라서 백련사 불교결사운동은 역사적으로나 문화사적으로 매우 큰 의미를 갖고 있다.

에 이르러 역시 도강현과 합하여 강진현이 되었다. 강진현은 한말인 1895년 전국이 23부제로 행정구역이 개편되면서 나주부 관할 강진군이 된 뒤 오늘에 이르렀다. 강진군은 1읍 10면으로 이루어졌으며, 현재의 인구는 약 5만여 명에 이른다.[10]

영랑 문학의 산실인 강진의 인문 지리적 공간의 특성은 언론매체의 심층보도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다음은 『경향신문』 기사[11]의 일부다.

…<중략>… 강진군 도암면 귤동마을 뒷산 다산초당은 그가 제자를 가르치고 저술을 했던 곳이다. 원래는 초가여서 그렇게 이름 붙였다. 그러나 일제 때 붕괴된 후, 50년대 후반 목조기와로 복원됐다. 현판 글씨는 추사체를 모아 판각한 것이다. 바로 옆에 집필실로 썼던 동암(東菴), '18제자' 등 문하생들이 밤새워 토론하던 공간 서암(西庵)이 있다. 초당 서쪽 뒤편에는 그가 직접 바위에 쓴 '丁石(정석)'이 남아 있다. 동암에서 조금 오르면 천일각이 있다. 흑산도로 유배를 간 둘째형 '약전'을 그리며 격한 마음을 달래던 곳이다. 200년 전 그의 흔적을 다산초당 아래 다산유물전시관에 모아뒀다.

이곳 출신 영랑 김윤식도 다산 못지않은 팬들이 많다. 읍내 탑동 마을에는 그의 생가가 1985년 복원돼 있다. 국가지정 중요민속자료 제252호다. 이곳에서 주옥같은 '한국 서정시'가 탄생했다. 국문학도나 문학가 지망생들이 날마다 줄지어 찾는다.

…<중략>…

한국을 서양에 알린 최초의 인물이 네덜란드 출신 헨드릭 하멜이다. 그는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 소속 상선을 타고 일본 나가사키로 가다 폭풍을 만나 제주도로 들어왔다. 효종 4년(1653)이었다. 그는 14년 동안 억류생활 중 무려 7년간을 강진 병영에서 살았다. 하멜은 그때 자신의 경험을 담은 『하멜 표류기(하멜보고서)』를 지어 조선의 지리, 풍속, 정치 등을

10) 김선태, 『강진문화기행』, 도서출판 작가, 2006, 226쪽.

11) 「新 『택리지- '한국답사 1번지' 남도 제일의 역사 문화의 고을, 강진」 경향신문』, 2011. 7. 21.

유럽에 처음 알렸다. 이 책은 그가 밀린 임금을 청구하기 위해 증거로 쓴 것이다. 책에는 강진 얘기가 수두룩하게 나온다.

…<중략>…

강진은 고려청자의 고향이다. 청자는 중세 예술을 대표하는 대표적인 문화재다. 고려왕실의 적극적인 후원으로 발전을 거듭하던 청자는 드디어 11세기 말 형태와 문양이 독창적으로 정립됐다. 그중에서도 강진 도요지는 왕실에 필요한 도자기를 굽는 곳이었다. 12세기엔 상감청자 이외에 철화청자, 진사청자 등 다양한 기법의 도자기가 등장하면서 꽃을 피워냈다. 그러나 조선이 들어서면서 백자가 들어서면서 시나브로 청자가 역사에서 사라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강진에는 고려청자 가마터 188곳이 남아 있었다.

흔히 강진은 한국이 낳은 영랑이라는 빼어난 서정시인과 최고의 학자요 사상가인 다산, 그리고 고려청자와 함께 강진의 대표적 상징으로 직결된다. 이들의 시와 학문, 그리고 예술을 있게 한 곳이 다름 아닌 강진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강진은 그들의 문학과 학문, 그리고 예술을 풍요롭게 살찌운 어머니인 셈이다. 특히 영랑과는 달리 다산은 외지인으로서 비록 죄인이라는 서러운 이름표를 달고 살았지만, 그의 학문적 성과를 집대성할 수 있도록 감싸 안은 곳은 분명 강진 땅이다.

2.『시문학』지와의 관계성

1930년대 시문학파의 시적 무대는 크게 보면 전라도, 작게 보면 강진이라고 할 수 있다.[12] 김현은 시문학파를 대표하는 영랑·용아·현구 세 시인을 묶은『韓國現代詩文學大系·7』(지식산업사, 1981)에서 이들 세 시인을 묶어 '강진시파'라고 처음으로 별칭하고 있다. 그가 정지용·신석정·이하윤 등 시문학파의 다른 동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2) 김 현,「찬란한 슬픔의 봄」,『韓國現代文學大系·7』, 지식산업사, 167쪽.

이들 셋만을 묶어 굳이 그렇게 별칭한 것은 문학의 지역 분파주의를 조장하기 위함이 아님은 물론일 것이다.

그것은 첫째로, 이들의 고향이 전라도(엄격히 말하면 전라남도)라는 점이다. 물론 강진이 고향인 영랑·현구와 달리 용아의 고향은 송정리(지금의 광주광역시 광산구)이긴 하지만, 지역적으로 그리 멀지 않은 거리에 있다는 점에서 큰 무리가 없으며, 둘째로 『시문학』 창간을 주도한 용아가 사전에 영랑을 만나기 위해 수시로 강진을 오갔었다는 점, 셋째로, 시문학파 동인들 중 이들 셋만이 창간 당시 무명이었으며 끝까지 시문학파로서만 충실했던 점, 넷째로는, 무엇보다 용아가 순수시 운동의 이론적 기반을 마련했다면 영랑과 현구가 이를 시로써 충실하게 구현시켰다는 점에서 충분히 그 이해가 가능하다.[13]

주지하다시피 1930년대 시문학파의 탄생은 한국 현대시문학사에 순수서정시의 우의를 다시 세운 역사적인 사건이다. 시문학파를 주도한 사람은 당시 문학적 지명도가 없었던 무명의 영랑 김윤식과 용아 박용철이다. 그러나 실제로 역할은 용아가 했지만 용아를 지도하고 자문하며 모든 문학적 방향을 구상한 사람은 영랑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 점은 "내가 시문학을 하게 된 것은 영랑 때문이여"[14]라고 말한 용아의 고백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동향인 영랑과 용아는 동경 유학시절부터 같은 학교에 다니면서 서로 친해졌다.[15] 그러나 영랑은 문학에 뜻을 둔 영문학도였지만, 용아는 수학의 천재로 불리던 이공학도였다. 그러한 용아를 영랑이 문학에 뜻을 두도록 집요하게 부추김으로써 용아는 결국 문학에의 길로 들어서게 된다. 이렇듯 용아는 중도에서 문학으로 전향한 만큼 시적 안목이

13) 김선태, 『김현구 시 연구』, 국학자료원, 1997, 32쪽.
14) 박용철, 『박용철 전집』 제2권, 현대사, 1982, 6쪽.
15) 영랑과 용아는 일본 청산학원 중학부에 같이 다녔다.

나 창작 등 모든 면에서 영랑의 지도와 자문을 필요했던 것 같다. 이런 면에서 영랑은 용아의 문학적 스승인 셈이다.[16]

용아는 또한 처음엔 순수문학보다 프로문학에 경도됐던 것 같다. 그래서 1927년 9월 영랑과 함께 금강산을 다녀올 무렵 유점사에서 개잔령을 넘어서 고성 삼일포에 이르기까지 정치주의의 가부를 가지고 얼굴을 붉히며 싸운 적이 있으며, "그 때 세계를 풍미하던 사조에 벗도 사로잡혔었다"[17] 고 술회한 바 있다. '그 때 풍미하던 사조'란 당시 유행하던 정치주의적 프로문학임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용아가 영랑의 표현을 빌면 "훌륭한 시인"[18]으로 변신한다. 영랑의 이 '훌륭한'이라는 표현은 용아가 순수시에 대한 이해와 확신이 깊어졌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용아의 변화는 당연히 영랑의 자극에 힘입은 바 크다고 할 수 있으며, 1928년 1월말부터 새롭게 시작한 문학공부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그가 새롭게 시작한 공부란 영랑의 지도와 자문을 받으며 시 창작에 몰두하는 것과 어학실력을 향상시켜 외국시를 감상하고 변역하는 일이었다. 그래서 용아는 영랑에게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하기에 이른다.

> 지난 번 時調의 評과 修正도 자네 意見을 따르네. 再現說과 情緖를 폭삭후라는 것도 알어드렀네. 나는 이즘 와서야 그것들을 차츰 깨달아가네. 좀 늦지만 어쩔 수 없지. 느끼는 것이 없이 생각해 理解할랴니까. 그 前에는 詩(뿐만 아니라 아무 글이나) 짓는 奇巧(골씨)만 있으면 거저 지을 셈 잡었단 말이야. 그것을 이새 와서야 속이 덩어리가 있어야 나오는 것을 깨달았으니 내 깜냥에 큰 發見이나 한 듯 可笑[19]

16) 김선태, 위의 책, 78쪽.
17) 김영랑, 「인간 박용철」, 『조광』 5권 12호, 1039, 318쪽.
18) _____, 위의 책, 같은 쪽.
19) 박용철, 앞의 책, 326쪽(영랑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는 영랑이 당시 민족문학파인 절충파의 소박한 문학관을 견지하고 있던 용아에게 낭만주의적 순수시에 대해 자문을 했던 것을 용아가 새로운 공부를 통해 이를 뒤늦게 깨닫고, 그 깨달은 바를 주저 없이 영랑에게 털어놓은 편지 내용이다. 여기에서 보면, '생각'과 '기교'는 절충파의 내용과 형식의 논쟁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으며, '정서를 폭 삭후라는 것'과'속에 덩어리가 있어야 나오는 것'은 낭만주의적 순수시론의 핵심내용이라 할 수 있다. 이렇듯 용아는 지금까지 견지했던 자신의 문학관을 반성하고 나서야 영랑과의 의견 조율이 가능해지고, 영랑은 그때서야 비로소 용아에게 동인회 구성 및 동인지 발간계획을 제의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시문학파의 모든 문학적 방향은 이미 오래 전부터 영랑의 머릿속에서 정해져 있었다고 보아도 좋을 것 같다.[20]

이리하여 용아는 1930년 3월 5일 마침내『시문학』을 창간하기에 이른다. 여기까지가 시문학파의 핵심멤버인 영랑과 용아가『시문학』을 창간하기까지의 준비과정이다. 그러면 나머지 동인은 어떻게 구성하였으며, 그 성분은 어떠한지를 알아보자.

> 梁柱東君의 文藝公論을 平壤서 發刊한다고 말하면 이에 妨害가 될 듯 싶네. 그러나 通俗 爲主일게고 敎授 品位를 發揮할 모양인가보니 길이 다르이. 何如間 芝溶 樹州 中 得其一이면 始作하지 劉玄德이 伏龍 鳳추에 得其一이면 天下可定이라더니 나는 芝溶이가 더 좋으이. 文藝公論과 特別한 關係나 맺지 않었는지 몰르지 서울거름은 해보아야 알지.… (중략) …지명 丹弓(丹을 赤과 같이 볼 사람도 있는가) 丹鳥・玄燈(너무 신비적)・시령 우리말 단어가 좋은 게 있으면 제일 좋겠는데….[21]

위의 인용문은 용아가 1929년 3월 26일 강진에 있는 김영랑에게 보

20) 김선태, 앞의 책, 79쪽.
21) _____, 위의 책 319쪽.

낸 편지의 일부분이다. 여기에서 용아는 창간 멤버를 자신과 영랑을 포함한 지용까지 세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양주동의 文藝公論과는 길이 다르다'는 것은 절충파와 시문학파의 문학적 방향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지용・수주 중 득 기일'에서 수주의 순수시관[22] 즉 이데올로기문학에 대한 반성의 의지와 지용의 시와 같은 새로운 시에 대한 욕구가 용아의 심저에서 작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새로운 잡지의 이름을 '丹弓・丹鳥・玄燈'을 생각한 것은 한국의 전통적 순수시관 즉 도교적 자연관이 그의 심저에 자리 잡고 있었음을 말해주며, 이것은 전통지향성과 모더니티 지향성의 변증법적 발전에 의한 새로운 문학의 성취 욕구를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丹을 赤과 같이 볼 사람도 있는가'에서는 용아의 카프파에 대한 염려를 알 수 있으며, '우리말 단어가 좋은 게 있었으면…'에서는 그의 국어에 대한 자각의 일단을 볼 수 있다.[23]

> 雜誌의 일은 수얼스럽게 되는 듯도 하였으나 詩文學이라는 命名을 하였을 뿐 二十七日을 第一次 期日로 定해 보았으나 實行할 아모 재조도 없었다. 그동안에 芝溶에게서 金素雲을 알게 되였다 日本內地서 공들인 朝鮮民謠集을 낸 사람으로 마음속에 熱을 가지고 이 길에 精進하는 사람으로 뵈였다. 우리 일에 協力을 約束하였다[24]

위의 인용문은 동인지 발간이 그들의 의욕만으로 쉽게 이루어지지는

22) 변영로는『조선의 마음』(평문관, 1924)이란 시집에서 '봄비・논개' 등의 낭만주의적 순수 서정시를 보여 주었으며, 그 부록에 '상징적으로 살자'(61쪽), '애욕과 예술욕'(79쪽), '시인・예술가・철학자여'(106쪽), '쉘리란 누구인가'(97쪽) 등의 산문을 실어 낭만주의적 순수시간을 피력했다.

23) 박용철, 앞의 책, 319쪽.

24) _____, 위의 책, 372쪽.

않음을 보여주는 1929년 12월 23일자 용아의 일기의 일부다. 여기에는 동인지 발간의 필수 요건의 하나인 동인 구성의 어려움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 경비는 용아의 사재로 충당된 듯 보이나 동인 구성에 애로사항이 많은 것은 이들이 지명도가 없는 무명 문학도였다는 점에 기인한다. 그러나 이들은 용케 '정인보·변영로·정지용·이하윤' 등 4명의 동의를 얻어 동인 구성의 난관을 해결한다. 무명의 영랑과 용아가 대부분 당시 시단을 주름잡던 이들의 동의를 얻어낼 수 있었던 데에는 사전에 상호 면식이 있었던 점이 크게 작용했으리라 짐작된다. 이는 영랑이 휘문의숙 재학 시 하급반에 정지용이 있었으며, 용아가 동경에서 돌아와 연희전문을 다닐 때 변영로와의 인연과 정인보로부터 시조를 배웠던 점 등을 생각하면 쉽게 짐작이 간다.

그리고 정지용이 김소운을 천거한 것은 앞의 인용문에서도 알 수 있듯이『朝鮮民謠集』을 낸 바 있는 사람으로서 전통성과 음악성을 중요시한 그들의 문학적 방향에 부합되는 인물이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으나 무슨 연유인지는 몰라도 종국엔 그가 제외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하여 시문학파의 창단멤버는 총 6명으로 출발한다. 영랑과 용아는 주동 멤버이고, 지용과 수주는 전술한 바와 같이 애초부터 포섭 대상이었다.

다만 정인보와 이하윤이 문제로 남는다. "위당 정인보 선생과 수주 변영로 선배를『시문학』의 동인으로 추대한 것은 그가 연희에 있었을 때 맺어진 인연이 깊었던 소이로 짐작된다."[25] 고 이하윤은 밝히고 있으며, 김영랑도 "용아의 문학은 시조로 시작되었다 함이 정당할 것이다. 위당의 영향으로 인하여서도 벗은 시조와 시를 한 시대에 같이 하여 왔었는데…"[26]라고 정인보와의 인연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정인보

25) 이하윤,「박용철의 면모」,『현대문학』, 1962. 12, 231쪽.
26) 김영랑,「인간 박용철」,『조광』제5권 12호, 조광사, 1939, 318쪽.

를 동인으로 추대한 것은 시조의 창작 외에 다른 뜻도 있는 듯싶다. 오히려 정인보가 한학자이며 민족주의자였다는 데에 더 큰 의미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하윤에게서는 해외 시 번역과 창작 시, 그리고 편집 실무 등을 기대했던 것 같다. 이에 대해 김용직은 "이하윤의 등장 이면에는 세밀한 계산이 작용한 듯 보인다."[27] 고 밝히고 있다. 이렇게 하여 1930년 3월 『시문학』 창간호가 나오게 된다. 창간호 목차는 다음과 같다.

동백닙에 빗나는 마음(詩十三篇) ····· 김윤식
이른 봄 아츰(詩四篇) ····· 정지용
물레방아(詩二篇) ····· 이하윤
떠나가는 배(詩五篇) ····· 박용철
<外國詩集>
폴·포-르(佛) 二題詩 ····· 이하윤
핵토-르의 이별(獨 실레르) ····· 용 아
미뇬의 노래(獨 괴테) ····· 용 아
편집후기 ·····
투고규정 ·····

『시문학』 창간호에는 24편의 순수 창작 시가 발표됐다. 이 가운데 김영랑의 시가 13편으로 가장 많은 지면을 점유(54%)했고, 정지용 4편(16%), 이하윤 2편(8%), 박용철 5편(20%) 등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비율로 보아 『시문학』지의 창간은 결과적으로 영랑을 위한 것이 되었다. 창간호는 5인의 동인으로 시작된다. 그러나 박용철이 「시문학 창간에 대하야」(조선일보, 1930. 3. 2)에서 밝힌 내용을 보면 이상의

27) 김용직, 「시문학파 연구」, 『현대시인 연구』, 일지사, 1982, 205쪽.

5인에 변영로까지 합해서 6인의 동인으로 구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시문학』 2호는 예정대로 두 달 뒤인 1930년 5월에 나오게 되는데, 창작 시 란을 살펴보면 변영로의 시 1편과 김현구의 시 4편이 새로 소개된다. 여기서부터 무명의 김현구가 기존 6명의 멤버 외에 처음 새로운 동인으로 가담하게 됨으로써 시문학파의 구성원은 총 7명이 된다.

> 詩文學에 대한 期待가 컷슴인지 原稿를 보내주신 분은 意外로 만히 게셧습니다. 그러나 그 多數가 詩라는 形式은 가장 짧아서 가장 쓰기 쉬운 것이니 써본다는 態度에 갓가운 것은 서운한 일이엇슴니다. 참으로 優秀한 作品을 만히 보내여 誌上에 실른 光榮을 주시기를 衷心으로 바람니다. 이번에 玄鳩氏의 作品을 처음 실게 된 것은 대단한 깃븜으로 녁입니다.[28]

위의 인용문은 투고한 원고에 대한 단평과 현구의 작품의 천거를 알리는『시문학』2호의 편집 후기이다. 현구의 동인 가담 경위에 대해서는 편집 후기에 나타난 '이번에 玄鳩氏의 作品을 처음 실게 된 것은 대단한 깃븜으로 녁입니다'부분 외에 기록을 찾아볼 수 없다. 물론 용아는 처음부터 동인들의 가담 경위를 거의 기록으로 밝히지 않았다. 이 점은 나중에 가담하게 되는 신석정과 허 보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러나『시문학』의 발간은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못한다. 3호가 1년 반이나 늦은 1931년 10월 10일에야 나왔으며, 당초의 격월간을 계간으로 변경하기에 이른다. 3호가 늦어진 사유는 "同人들의 사정"이라고 막연하게 밝히고 있지만, 창작 시 란을 가지고 동인들 간의 갈등이 있었으며, 특히 정지용과의 마찰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이 점은 용아가 영랑에게 보낸 私信에서 "詩文學이 탈났네, 芝溶은 詩가 못나오네. 어떻든 三號는 쉽게 내버리고, 明年부터는 陣容을 달리하지"[29]라고 말한

28)『시문학』2호 편집후기, 시문학사, 1930. 5. 47쪽.

것과, 영랑도 "하기야 누구보다 갓차운 芝溶兄과도 詩文學 三號 編輯을 싸돌고 內心 衝突이 있긴 했다"[30]고 밝힌 데서도 알 수 있다.

이렇게 『詩文學』 3호의 편집을 싸돌고 어려움을 겪을 무렵 신석정과 허보가 새로운 동인으로 가담하게 된다. 현구와 마찬가지로 이들에게서도 새로운 창작시를 기대했던 것 같다.[31] 그러나 영랑과 용아의 이러한 일련의 노력은 『詩文學』 후기에서 밝힌 년 4회의 발간 약속이 지켜지지 못함으로써 중단되고 만다. 『詩文學』은 그래서 3호를 마지막으로 종간된다. 여기에서 용아는 시적 재능에 한계를 절감하고 비평가로서의 변신을 생각[32]한 끝에 이하윤과 함께 1931년 11월 『문예월간』을 창간하기에 이른다. 그런데 『문예월간』은 "大衆的 一般 文藝趣味月刊雜誌"로서 이미 동인지의 성격을 벗어나 있었으므로 시문학파의 동인의식은 와해되고 동류의식만을 간직한 채 각자의 문학 활동으로 접어들게 된다.

『문예월간』 2·3호는 예정대로 발간된다. 그러나 『문예월간』도 4호로써 끝나고 용아는 잠시 연극운동에 몰두하게 된다. 그리고 1934년 1월에 다시 『문학』을 창간하게 되는데, 용아의 와병으로 이 문예지도 3호로써 그 막을 내리고 만다. 그런 연후 용아는 1935년 10월 시문학사의 이름으로 『鄭芝溶 詩集』에 이어 『永郎 詩集』을 출간함으로써 시문학파의 작품적 성과를 마무리하게 된다.

---

29) 박용철, 앞의 책, 같은 쪽.

30) 김영랑, 앞의 글, 319쪽.

31) 새로운 창작시의 생산을 영랑과 용아의 핵심적 과제였다.

32) 용아의 이러한 심정은 영랑에게 보낸 편지에서 잘 나타나 있다.
"정말 나는 봄 以後 한 편 없네 묵은 것도 하나 내고 싶지는 않네"(박용철, 위의 책, 같은 쪽.)

Ⅲ. 김영랑의 시문학 공간의 형상성

김영랑 문학의 태 자리는 전남 강진읍 남성리 221번지(일명 탑골)이다. 영랑은 1903년 1월 16일 이곳에서 태어나 1930년『시문학』창간에 큰 역할을 했으며, 1948년 9월 서울로 이주하기 전까지 무려 46년 간 여기에서 시를 썼다. 생애 총 86편의 시를 남긴 김영랑은 해방 이후 창작된 몇 편을 제외하곤 거의 모든 시가 이곳에서 탄생했다. 즉 탑골은 영랑의 시를 낳은 문학공간이자 역사의 현장인 것이다. 그러므로 향토성이 짙은 그의 시는 향리 강진의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그의 생가의 풍물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 따라서 영랑 시의 탄생지(생가)를 찾는 일은 그의 시 공간을 만나는 일로 통한다.[33]

영랑 시의 요람이라고 할 수 있는 그의 생가에는 모두 6기의 시비가 있다. 이들 시의 공간은 하나같이 생가 안이라는 데 공통점이 있다.

> 내 마음의 어딘 듯 한편에 끗없는 강물이 흐르네
> 도처오르는 아침날빗이 빤질한 은결을 도도네
> 가슴엔 듯 눈엔 듯 또 핏줄엔듯
> 마음이 도른도른 숨어있는 곳
> 내 마음의 어딘 듯 한편에 끗없는 강물이 흐르네
>
> <동백닙에 빗나는 마음>,『시문학』창간호, 1930. 3

영랑은 1930년 3월『시문학』창간호 첫 장에 위의 시 <동백닙에 빗나는 마음>외 12편을 발표하였다. 그러므로 <동백닙에 빗나는 마음>은 한국 현대시의 신기원을 이룬 시문학파와 김영랑이란 시인의 탄생을 알린 최초의 작품인 셈이다. 이 시의 문학 공간은 영랑 생가의 안채와

33) 김선태, 앞의 책, 98쪽.

사랑채 사이에 식재된 수령 300년 된 동백나무다. 물론 영랑 생가 이외에도 강진은 어디를 가나 쉽게 동백나무를 볼 수 있다. 옛날에는 집집마다 한 그루씩 있었다고 한다. 그래서 영랑은 그의 산문 <감나무에 단풍 드는 전남의 9월>에서 "나는 내 고향이 동백이 클 수 있는 남방임을 감사 하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다.

위의 시는 1935년 용아 박용철에 의해 시문학사에서 발간한『영랑시집』첫 머리를 장식했으며, 1939년『현대 서정시선』에 재 수록되었고, 같은 해 출간한『현대 조선문학 전집』에는 <동백잎>이란 제목으로 바꿔 게재되었다. 영랑이 가고 없는 생가 울안엔 예나 변함없이 늙은 동백나무가 햇살에 빤질빤질하게 빛나고 있다.

쓸쓸한 뫼앞에서 후젓이 앉으면
마음은 갈앉은 양금줄 같이
무덤의 잔디에 얼굴을 부비면
넉시는 향맑은 구슬손 같이
산ㅅ골로 가노라 산ㅅ골로 가노라
무덤이 그리워 산ㅅ골로 가노라

<쓸쓸한 뫼아페>,『시문학』창간호, 1930. 3.

이 시의 창작 공간은 영랑 생가에서 15km떨어진 전남 해남군 계곡면 신평리 야산에 있는 김영랑의 첫 부인 김은초의 묘소다. 영랑은 조혼풍습으로 14세 때인 1916년 두 살 위인 강진 처녀와 결혼하였으나 그 이듬해에 부인이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이 시는 사별한 부인에 대한 애틋한 그리움을 담고 있다. 쓸쓸한 무덤 앞에 호젓이 앉아 옛 생각에 잠기면 마음은 가라앉은 양금 줄처럼 맑은 소리를 내는 듯하고, 무덤의 잔디에 얼굴을 기대면 영혼은 맑은 향기를 풍기는 섬섬옥수처럼 그렇게 깨끗한 모습으로 피어나는 것 같다.

그런데 그 무덤은 고향에 있지 않고 산골에 있다. 화자는 무덤이 그리워 산골로 간다는 말을 몇 번이나 반복하였다. 산골로 간다를 반복함으로써 아내가 있는 저승을 넘을 수 없는 화자의 안타까움이 절실하게 살아나고 있다.

돌담에 소색이는 햇발가치
풀 아래 우슴 짓는 샘물가치
내 마음 고요히 고운봄 길우에
오날 하로 하날을 우러르고 십다.

새악시 볼에 떠오는 붓그럼가치
詩의 가슴을 살프시 젓는 물결가치
보드레한 에메랄드 얄게 흐르는
실비단 하날을 바라보고 십다.

<돌담에 속삭이는 햇발같이>, 『시문학』 2호, 1930. 5.

위의 <돌담에 속삭이는 햇발같이>의 시적 공간은 영랑 생가에 들어서기 전 처음으로 마주치는 돌담이다. 이 작품은 검인정 중학 1년 국어교과서 23종 가운데 12종에 실린 김소월의 <엄마야 누나야> 에 이어 다음으로 많은 9종에 실려 있다. 그만큼 널리 애송되고 있는 국민 시다. 특히 이 시는 투박한 일상어를 섬세하게 갈고 닦아 음악적인 언어로 옮겨 시어의 미적효과를 극대화하고, 이른바 순수서정의 경지로 승화시켰다는 찬사를 받고 있다.[34] 80여 년이 흐른 지금도 영랑생가로 향하는 길목의 돌담은 여전히 정겹다. 특히 가을엔 돌담의 빨간 담쟁이넝쿨이 시심을 지펴 '돌담에 속삭이는 햇발같이' 한 구절이 절로 떠오른다.

34) 『김영랑과 시문학파』 가이드북, 영랑 · 현구문학관 학예연구실 편, 2011, 7쪽.

마당앞
맑은 새암을 드려다본다

저 깁흔 땅밑에
사로잡힌 넉 잇어
언제나 먼 하날만
내여다보고 계심 가터

별이 총총한
맑은 새암을 드려다본다

저 깁흔 땅속에
편히누은 넉 잇어
이밤 그눈 반작이고
그의 것몸 부르심 가터

마당앞
맑은 새암은 내령혼의 얼골

<마당 앞 맑은 새암을>, 『영랑시집』, 1935. 11.

이 시는 영랑의 집 마당 앞에 있는 실제의 우물을 배경으로 삼고 있다. 흔히 샘('우물'의 전라도 방언)은 마당 앞이나 가에 있다. 영랑 생가의 우물도 그렇다. 동네의 공동우물은 물 긷는 아낙네에 의하여 온갖 소문이 모이는 공공의 장소이다. 원래가 수량이 풍부한 곳을 쉽게 고를 수 있어 별로 깊게 파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보통 그 안을 환히 들여다볼 수 있는 곳이 공동우물이다.

그러나 집안의 우물은 한정된 장소에 파기 때문에 수량이 부족하여 상당히 깊이 파야 물이 고일 수 있다. 여름에는 공동우물보다 훨씬 시원하여 그 속에 김치나 과일을 두었다가 내어 먹기도 한다. 이 우물은

깊은 비밀의 장소요, 정적인 폐쇄의 장소이다. 그러므로 이 '샘'은 그것이 위치한 '마당'의 동적인 공개성과 대립한다. 이러한 마당의 앞쪽에 자리 잡고 있으면서도 오히려 정반대의 상황에 놓여 있음으로서 우물의 폐쇄성은 더욱 부각된다.

「오-매 단풍 들것네」
장광에 골불은 감닙 날아오아
누이는 놀란듯이 치어다보며
「오-매 단풍들것네」

추석이 내일모레 기둘니리
바람이 자지어서 걱정이리
누이의 마음아 나를 보아라
「오-매 단풍 들것네」
<오매 단풍들것네>, 『시문학』 창간호, 1930. 3.

생가 안채 옆 장독대와 감나무는 전라도 사투리를 감칠맛 나게 구사한 시 <오-매 단풍 들것네>의 현장이다. 영랑은 백석(평안도)·박목월(경상도)과 더불어 전라도 사투리를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한 시인으로 꼽히는데, 그 대표작이 바로 이 시다. 방언을 시의 첫 행에 도입한 사례는 한국 현대시사에서 최초의 시도이며, 특히 전라도 사투리가 문학의 중심부에 진입했다는 점에서 시사적 의미가 크다.

다음 작품은 장독대 옆 모란 밭을 소재로 한 <모란이 피기까지는>이다. 당시 생가에는 수십 년 묵은 모란(전라도 말로 목단)이 있었으며, 현재의 모란은 1985년 복원 당시 식재한 것이다.[35]

35) 김현철(영랑 3남)의 증언(2008년 12월부터 2011년 6월까지 영랑문학관 관장으로 재직)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즉 나의 봄을 기둘리고 있을테요.
모란이 뚝뚝 떠러져버린날
나는 비로소 봄을여흰 서름에 잠길테요.
五月어느날 그하로 무덥든 날
떠러져누은 꽃닢마져 시드러버리고는
천지에 모란은 자최도 없어지고
뻐쳐오르든 내보람 서운케 문허졋느니
모란이 지고말면 그뿐 내 한해는 다가고말아
三百예순날 한양 섭섭해 우옵내다.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즉 기둘리고 있을테요 찰란한 슬픔의 봄을
<모란이 피기까지는>, 『문학』 3호, 1934. 4.

이 시의 첫 행에서 알 수 있듯, 작품은 영랑이 모란을 지극히 사랑한 데서 출발한다. 그의 집 안에는 지금도 수 백여 그루의 모란이 식재되어 있다. 이 시에 대하여 이제껏 많은 이들의 논평이 있어 왔다. 서정주는 "음조(音調)가 아름답기로 그 정서의 면면함으로 우리나라 신시(新詩) 역사 이후의 대표적인 걸작 중의 하나다."라 했고, 박두진은 "그의 주정적(主情的) 주제와 소재적(素材的) 자연이 가장 잘 조화되어 하나의 시로 완벽에 가까운 표현을 얻었다."고 극찬했다. 이외에도 많은 이들이 이 시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지만 대략 위의 평으로 집약된다 하겠다.

매년 4월 말~5월 초, 그의 생가 앞마당에 모란이 활짝 필 무렵 영랑문학제가 성대하게 열린다. 그의 시처럼 '5월 어느 날'이면 '모란이 뚝뚝 떨어진다'. 후세들은 영랑백일장, 시낭송대회, 미술대회 등을 열어 그의 시정을 이어가고 있다.

Ⅳ. 영랑 시 공간의 문학사적 의의

로만 인라르텐(R. Ingarden)이 그의 주저『문학예술작품론』에서 지적한 것처럼 문학 작품에 나타난 공간은 현실적 공간이나 기하학적 공간이 아니다. 인간이 감각기관과 지각 기제의 도움으로 내재화된 공간, 즉 체험된 공간이다. 이러한 견해를 염두에 둔다면, 김영랑의 시에 내포된 공간은 작가의 세계관과 현실인식이 반영되는 주요한 구성요소 중의 하나임에 틀림이 없다. 문학공간에 대한 관심은 작품 자체를 뛰어넘어 문학이 생산되는 현장 그 자체를 체험하는 작업이다. 또한 그것은 창조적인 예술가인 작가의 내면세계를 탐구하는 작업이며, 나아가 인류가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원초적인 생명공간을 확인하는 작업이 될 것이다.

1930년대는 일제 강점기의 탄압과 그로 인한 문학의 탈정치화가 뚜렷한 흐름으로 이어지던 시기다. 하지만 이러한 암울한 상황 속에서도 시론이 체계화 되고 모더니즘시가 본격적으로 대두하는 등 우리 문학은 한층 성숙한 양상으로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그 중심에는 전남 강진의 영랑 김윤식이 있었다.

주지하다시피 김영랑 문학의 태 자리는 그의 고향 강진이다. 영랑은 46년간 향리에서 거주하며 생애 86편의 주옥같은 시를 남겼다. 이 가운데 후기 시 몇 편을 제외하곤 거의 모든 작품이 강진에서 씌어졌다.

이에 대한 논거는『시문학』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1930년 3월 발행한『시문학』창간호에 24편의 순수 창작 시가 소개됐는데, 이 가운데 김영랑이 13편을 발표해 전체의 54%를 점유했다. 이어 그해 5월『시문학』2호에 9편을, 그 이듬해 발행한『시문학』3호에 7편을 발표하는 등 19개월 만에 무려 29편의 시를 선보였다.『시문학』에 발표

한 작품의 문학공간은 대부분 그의 집 안이거나 탑골 주변의 풍물이 소재로 활용되었다. 뿐만 아니라, 1935년 용아 박용철에 의해 시문학사에 발행한『영랑시집』에 수록된 53편의 시 역시 모두 생가와 그 주변을 창작배경으로 삼고 있는 공통적 특성이 있다.

따라서 김영랑 시의 주무대가 되었던 강진이라는 공간은 영랑 문학을 넘어 1920년대 시와 1930년대 시의 분수령을 이룬 역사적 공간이었다는 사실만으로도 나름의 충분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Ⅴ. 맺음말

지금까지 노버그 슐츠(C.Noberg Schultz)의 '실존적 공간이론'을 수용하여 김영랑의 시문학 공간에 대한 문학사적 의의를 살펴보았다. 제Ⅱ장에서는 영랑 시의 원천이 된 그의 고향 강진의 인문 지리적 특성과 함께 1930년대 한국 현대시의 분수령을 이룬 시문학파와의 연관성에 대해 고찰하였다. 영랑은 1903년 전남 강진에서 태어나 1930년 용아 박용철과 더불어『시문학』창간에 큰 역할을 했고, 1948년 9월 서울로 이주하기 전까지 무려 46년 간 여기에서 시를 썼다. 생애 총 86편의 시를 남긴 김영랑은 해방 이후 창작된 후기 시 몇 편을 제외하곤 거의 모든 시가 이곳에서 탄생했다. 그러므로 향토성이 짙은 그의 시는 향리 강진의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그의 생가의 풍물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 그리고 그의 고향 강진이 지니고 있는 인문 지리적 공간의 특성 또한 시인 김영랑을 더욱 시인답게 만드는 촉매제 역할을 했을 것이다. 따라서 강진은 영랑의 시를 낳은 요람이자, 한국 현대 시문학사의 매우 중요한 현장이기도 하다.

또 Ⅲ장에서는 영랑의 시가 강진이라는 공간에 어떻게 형상화 되었

는지를 살폈다. 영랑은 『시문학』에 총 29편의 시를 발표했다. 이들 시편의 공간은 그의 집 울안이거나 집 주변이다. 뿐만 아니라, 1935년 용아 박용철에 의해 시문학사에 발행한 『영랑시집』에 수록된 53편의 시 공간 역시 모두 생가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그리고 제Ⅳ장에서는 Ⅲ장에서 살핀 영랑 시의 문학공간에 대한 문학사적 의의를 살폈다. 영랑은 자신의 내면에 흐르는 특징적이고 섬세한 정서를 붙잡아 아름다운 시어와 음악적 율조에 실어 표현했던 시인이다. 문학이 언어 예술이라 할 때, 언어적 측면에서 가장 충실했던 시인이었음은 부인할 수 없다. 김영랑이 1930년대 한국 현대시의 분수령을 이룬 주인공이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의 시문학 공간은 충분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참고문헌

<단행본>
* C. 노버그 슐츠, 이정국 옮김, 『건축의 의미와 장소성』, 미건사, 1994.
* C. 노버그 슐츠, 민경호 외 옮김, 『장소의 혼』, 태림문화사, 2002.
* 김선기, 『남도 현대시문학 산책』, 전남대 출판부, 2007.
* 김선태, 『강진문화기행』, 도서출판 작가, 2006.
* 류복현, 『용아 박용철의 예술과 삶 上·下』, 광산문화원, 2005.
* 우정권 편, 『한국문학콘텐츠』, 청동거울, 2005.
* 이숭원, 『영랑을 만나다』, 태학사, 2009.
* 이영진, 『공간과 문화』, 민속원, 2007.
* 이지엽 외, 『광주·전남 현대시문학 지도』, 시와사람, 2001.
* 임환모, 『한국 현대시의 형상성과 풍경의 깊이』, 전남대 출판부, 2007.
* 최수웅, 『문학의 공간, 공간의 스토리텔링』, 한국기술정보, 2006.
* 허형만, 『영랑 김윤식 연구』, 국학자료원, 1996.

<논문>
간복균, 「문학공간 연구를 위한 현장 답사의 방법과 실제」, 『우리문학연구』, 21, 2006.
김동근, 「정지용 시의 공간체계와 텍스트 의미」,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22, 2004.
* 김명준, 「문학공간분석 기술방법」, 『한국문학공간과 문화산업』, 한국문화기술연구소 제1회 전국학술세미나, 2004.
* 박형진, 「슐츠의 실존적 공간론을 기반으로 한 현대건축 실내공간의 장소성에 관한 연구」, 건국대 건축전문대학원 박사논문, 2008.
* 박혜영, 「문학과 공간, 이론적 접근 1」, 『덕성여대 논문집』 25, 2005.
* 임환모, 「현대언어문학」, 현대문학 분야 수록 논문 분석, 『한국언어문학』 51, 2003.
* 장일구, 「서사적 공간의 상징적 기획」, 『한국언어문학』 58, 2006.
* _____, 「영화의 서사적 공간」,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22, 2004.
* _____, 『경계와 이행의 서사공간』, 서강대 출판부, 2011.
* 정경운, 「서사공간의 문화 기호 읽기와 스토리텔링 전략 1」, 『한국문학이론과비평』 26, 2004.
* 정희선, 「문학공간을 활용한 장소마케팅 : 종로지역 사례로」, 『대한지리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2006.
* 한원균, 「문학과 공간, 그 이론적 모색」, 『한국문학공간과 문화산업』, 한국문화기술연구소 제1회 전국학술세미나, 2004.

이 논문은 2011년 7월 28일에 투고되어 2011년 8월 10일에 심사 완료하였으며, 2011년 8월 20일에 게재 확정되었음.

<국문초록>

김영랑의 시문학 공간 연구

김 선 기

오랫동안 문학은 독서 행위를 통해서만 향유할 수 있는 것으로 인식되어왔다. 그러나 최근 정보기술(IT : information technology)과 문화기술(CT : culture technology) 관련 산업이 발달함에 따라 다양한 측면에서 문학의 새로운 향유방법을 찾으려는 노력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문학작품의 '공간'에 대한 문제가 주목받고 있다. 문학작품은 시간과 함께 공간을 기본적인 요소로 해서 창작되는데, 이것들은 우리의 삶을 구성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그 중에서도 특히 문학공간을 통해서 문학작품의 구체성이 확보되며, 이 과정에서 작가의 창조적인 역량이 발휘된다. 그러므로 작품의 공간을 찾아 돌아보는 활동은 작가의 창작적 원천을 탐색하는 작업이 된다. 문학 기행이 전통적인 창작 교육방법으로 활용되었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김영랑의 시의 태 자리이자, 주요 문학공간은 전남 강진이다. 영랑은 1903년 이곳에서 태어나 1930년『시문학』창간에 큰 역할을 했으며, 1948년 서울로 이주하기 전까지 무려 46년 간 여기에서 시를 창작했다. 생애 총 86편의 시를 남긴 김영랑은 해방 이후 쓴 후기 시 몇 편을 제외하곤 거의 모든 시가 이곳에서 탄생했다. 그러므로 향토성이 짙은 영랑의 시는 향리 강진의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그의 생가의 풍물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 따라서 강진은 김영랑의 시를 낳은 요람이자, 한국 현대시문학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학공간이다.

본고는 노버그 슐츠(C.Noberg Schultz)의 '실존적 공간이론'을 수용하여 김영랑 시의 문학공간을 살피고 그 의의를 탐색하였다. 제Ⅱ장에서는 영

랑 시의 원천이 된 강진의 인문 지리적 특성과 함께 1930년대 한국 현대시의 분수령을 이룬 시문학파와의 연관성에 대해서 살폈다. 또 Ⅲ장에서는 영랑의 시가 강진이라는 공간에 어떻게 형상화 되었는지를, 제 Ⅳ장은 Ⅲ장에서 살핀 김영랑 시의 공간에 대한 문학사적 의의를 탐구하였다.

김영랑은 자신의 내면에 흐르는 특징적이고 섬세한 정서를 붙잡아 아름다운 시어와 음악적 율조에 실어 표현했던 시문학파의 대표적인 시인이다. 문학이 언어 예술이라 할 때, 영랑은 언어적 측면에서 가장 충실했던 시인이었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다. 김영랑이 1930년대 한국 현대시의 분수령을 이룬 주인공이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의 시문학 공간은 충분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주제어: 김영랑, 시문학파, 시문학, 문학 공간

<Abstract>

A Study on Poetic Literature Space of Kim Yeong Rang

Kim, Seon-Gi

Literature has been recognized to be enjoyable through the act of reading for long. But, as information technology and culture technology have been developed, efforts to find out how to enjoy literature from the various aspects have been also tried. In this process, the issue of space for literary works has been noticed. Literary works are created with basic factor of space with time and these are the parts of our life. Among them, concreteness of literary works can be secured through literary space and a writer's creative ability can be exerted. Therefore, activity to look for and reflect the space of literary works becomes the process of exploring the writer's creative source. It is just a reason why literary travel is used as one of the traditional creative education methods.

The place of Kim Yeong Rang's birth and his major literary space was Gangjin in Jeonnam. He was born here in 1903, played a great role in creating Poetic Literature in 1930 and he worte poems here for about 46 years until he moved to Seoul in 1948. Kim Yeong Rang who wrote total 86 poems produced most of his poems here except some written after Korean Liberation. Also his poems with rich locality are closely related to the beautiful landscape and the institutions and customs of his home in Gangjin. Thus Gangjin is the cradle of his poems and very important literary space in the history of Korean modern poetry.

This study accepted the existent space theory of C. Noberg Schultz and examined literary space of Kim Yeong Rang's poems and its meaning. Chapter

II examined association of Si-Mun-Hak-Pa in 1930s with the characteristics of human geography in Gangjin where was the source of his poems. Chapter III explored how Yeong Rang's poems were created in the space of Gangjin and chapter IV examined the meaning of literary history on the space of his poems described in chapter III.

Kim Yeong Rang is the representative poet of Si-Mun-Hak-Pa that expressed beautiful poetic words and musical melody based on characteristic and delicate emotion within his inner side. When literature is the art of language, it is widely known that Yeong Rang was the poet who was most faithful to language. Kim's poetic literature space has enough value with the mere fact that he was the leader of Korean modern poetry in 1930s.

key words: Kim Yeong Rang, Si-mun-hak-pa, Poetic Literature, Literary Space